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신 혜 정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울어진 식물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현대장신구 표현 연구

2021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공예학과
서은영

이울어진 식물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현대장신구 표현 연구

신 혜 정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공예학과


서은영


인 준 서

서은영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0 년 11 월

심사위원장 김종승 

심사위원 신혜정 

심사위원 이재익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식물의 다양한 성장 과정 중 노화현상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였다. 노화현상을 중점으로 그 현상 속에 담긴 생의 흔적을 현대 장신구로 표현한 연구논문이다. 일반적으로 자연 속 식물의 모습을 생각할 때 식물의 탄생, 그 시작점을 떠올린다. 상대적으로 노화의 단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명을 잃어간다고 인지한다. 하지만 연구자는 노화한 식물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낡고 쇠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간 동안 그 세월이 느껴지는 힘을 담고 있다고 느꼈다. 이울어진 식물에 담긴 흔적을 통해 식물의 삶의 여정을 되짚고, 자연현상의 변화에 따른 조형적 아름다움을 현대 장신구 작업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식물의 성장과정에서 발아의 과정만큼 노화의 과정 또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자연은 생성과 함께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소멸 즉 노화현상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이러한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한다. 뿌리가 물리적으로 이동할 수 없는 식물은 오히려 자신의 주변 환경을 파악하고 흐름과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자연의 힘을 이용해 씨앗을 퍼트린다. 이러한 과정의 흔적들은 이울어진 식물의 형태 속에 자리하고 있다. 자신의 자리에서 주변 환경에 적응하고, 때로는 순응하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적응 과정과 변화의 흔적들을 이울어진 식물 곳곳에서 엿볼 수 있다. 이울어진 식물은 노화의 과정 속에서 자신의 색과 향 그리고 형태가 빛바래 가지만 식물의 색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 살아온 흔적으로 남아 독특한 색감을 가지게 되고, 수분을 잃고 비틀어지고 말라가는 식물의 형태는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꽃잎과 줄기 사이에 유려한 선으로 나타난다. 이렇듯 이울어진 식물은 그 세월 속

에서 피어나 생명을 상실해가는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또 다른 생명의 힘을 보여준다. 지나간 식물의 삶 속 적응과 생존의 흔적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세월의 힘을 품고 이물어져 간다.

연구자는 단순히 식물의 노화에서 보이는 현상이나 형태를 조형적으로 재현하는 것이 아닌 식물이 노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에 대해 연구하며 노화현상 속에서 연구자가 느낀 감정과 의미 즉, 연구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이물어진 식물에 담긴 생의 흔적들을 현대 장신구로써 작품에 담아내고자 했다. 이물어진 식물을 나타내기 위하여 시든 식물이 가진 형태, 질감, 색깔 등을 가장 극대화하여 표현할 수 있는 재료들을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표면 변화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색깔의 변화인 황화현상과 형태의 변화인 건조 현상이다. 식물의 각 기관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에 적합한 재료를 찾아 작업했다. 각각의 유닛들을 제작하고 결합하며 연구자만의 시각을 담은 시든 식물의 표현 연구를 진행했다. 이물어진 식물의 구조를 바탕으로 조형성을 탐구하고 금속, 도자, 섬유 등의 다양한 재료를 통해 형태나 질감을 왜곡, 과장 혹은 생략하여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재구성해 장신구로 제작하였다.

지나간 세월 속, 적응과 생존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시든 식물의 이미지를 형상화 한 현대 장신구 연구를 통해 예술적 영감의 대상으로 이물어진 식물의 예술 창작의 가능성을 제안하고, 다양한 재료로 나타낸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과 표현방식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발전시키고자 하는 작업의 개념과 방향성을 성립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3
1. 식물	3
1) 식물의 생장	3
2) 식물의 노화	4
3) 예술 속 식물	7
2. 작품 전개과정	13
1) 형태연구	13
2) 재료 및 기법 연구	13
① 금속으로 표현된 이울어져 가는 식물	14
② 도자로 표현된 이울어져 가는 식물	15
③ 섬유로 표현된 이울어져 가는 식물	18
3. 작품 설명	20
III. 결론	32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섬유 제작방식 I	19
【표 2】 섬유 제작방식 II	19
【표 3】 섬유 제작방식 III	19

그림 목 차

【그림 1】 Mary Jo, <white oak leaves in autumn>, stillblog	5
https://stillblog.net/stills/day/a-good-vintage	
【그림 2】 Mary Jo, <white pine needles>, stillblog	5
https://stillblog.net/stills/day/gradient	
【그림 3】 Mary Jo, <dried tulips>, stillblog	6
https://stillblog.net/stills/day/16176-2	
【그림 4】 Mary Jo, <dried and curled wild iris leaves in winter>, stillblog	6
https://stillblog.net/stills/day/14602-2	
【그림 5】 Rory McEwen, <True Facts from Nature No.10 (Northern Leaves for Cy)>, 1973, Watercolour on vellum, 543×686mm	7
https://www.rorymcewen.com/print_NorthernLeavesForCy.php	
【그림 6】 Rory McEwen, <Limerston Street>, 1979, Watercolour on vellum, 470×570mm	7
https://www.rorymcewen.com/print_LimerstonStreet.php	
【그림 7】 장지영, <Plant_01>, 2020, 브로치, 은 동 칠보 포세린, 83×90×23mm	8
【그림 8】 김희주, 2010, 브로치, 적동 가죽 녹청, 90×60×35 mm	9
【그림 9】 김희주, 2010, 브로치, 적동 가죽 에나멜 컬러, 100×45×50 mm	9
【그림 10】 신혜정, <Late Fall Leaves>, 2013, 브로치, 정은 적동 자연물 실, 246×40×20 mm, 180×95×38 mm 210×53×36 mm 245×80×37 mm 257×40×25 mm	10
【그림 11】 서은영, 이울어가는 튜립 시리즈, 2017, 브로치, 적동 은	12
【그림 12】 서은영, 이울어가는 튜립 시리즈, 2017, 브로치, 은	12
【그림 13】 식물 마디표현	14
【그림 14】 식물 표면 질감 표현	14
【그림 15】 도자 제작과정	16

작 품 목 차

【작품 1】	고요한 움직임 시리즈	21
【작품 2】	그 곳에서	22
【작품 3】	그 넘어	23
【작품 4】	이올어가는	24
【작품 5】	시든식물; 흘러가는대로 IV	24
【작품 6】	시든식물; 흘러가는대로 I	25
【작품 7】	바람이 부는 대로 II	26
【작품 8】	바람이 부는 대로 III	27
【작품 9】	바람이 부는 대로 I	28
【작품 10】	그 안에서 II	29
【작품 11】	그 안에서 I	30
【작품 12】	그 순간	31

I. 서론

본 연구는 자연 속에서 식물의 노화현상이 발생하는 과정과, 노화현상 속에 담긴 식물의 생의 흔적을 조형화했다. 식물의 성장 과정과 노화 현상을 설명하기에 앞서 식물의 큰 범주인 자연의 어원과 사전적 정의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영어에서 자연(nature)은 태어나다(nascor)란 뜻의 natura 에서 생겨났다. 그리스어 피시스(physis)는 '태어나다, 생기다의 생성(生成)'의 뜻인 피오마이(태어나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한다.¹⁾ 자연의 어원은 자연의 성장과정 중 발아 즉, 생명의 탄생에 초점 맞춰져있다. 그렇다면 자연의 어원이 아닌 사전적 의미는 무엇일까? 자연의 사전적 정의는 스스로 생명력을 가지고 나와서 자라다 쇠약해져 사멸하는 과정을 말하며 생성, 발전하는 우주에 있는 모든 물리적 환경이나 사물의 현상이다.²⁾ 자연의 사전적 의미와 어원을 비교 정리하자면 자연의 어원은 성장과정 중 생성에 초점 맞춰져 있지만 자연의 사전적 의미에서 자연은 생성과 함께 성장과정 속에서 소멸 즉, 노화현상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자연의 어원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은 자연 속 식물을 생각할 때 식물의 탄생, 그 시작점을 떠올리기 쉽다. 또한 일반적으로 아름답다고 묘사하는 식물은 푸르른 모습 또는 꽃이 완벽하게 만개한 즉, 색과 향 그리고 화려한 형태를 가진 상태이다. 따라서 반대로 노화한 식물은 생명력을 잃었

1) “문학비평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2006년1월30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530762&cid=60657&categoryId=60657>.

2) “문학비평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2006년1월30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530762&cid=60657&categoryId=60657>.

다고 느끼며 식물의 삶의 마지막 모습이자 하나의 단면³⁾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연구자의 생각은 다르다. 연구자는 식물이 이물어가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아름다움을 이야기한다. 찬란한 시기를 맞이하고 서서히 그 모습을 잃어가는 이물어진 식물은 생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연구자는 이러한 이물어진 식물의 노화 현상 속 변화하는 다양한 흔적들이 매우 흥미로웠으며, 독립된 표현양식을 가진 장신구로 작품을 진행해 보고자 하였다.

앞서 말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식물의 노화현상 속에서 느낀 감정과 의미를 조형화했다. 생식생장을 거치며 노화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에 대해 연구하고 단순히 식물의 노화과정에서 보이는 형태나 현상을 조형적 재현에 머무는 것이 아닌 자신의 자리에서 환경에 적응하고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이물어진 꽃의 곡선과 잎의 주름, 빛바랜 색을 그리는 과정은 생의 이면에 존재하는 미적 가치를 발견하는 일이며, 시든 식물의 이미지를 형상화 한 현대 장신구 연구를 통해 예술적 영감의 대상으로 이물어진 식물의 예술 창작의 가능성을 제안하고, 다양한 재료로 나타낸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과 표현방식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발전시키고자 하는 작업의 개념과 방향성을 성립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3) 사물이나 사건의 여러 현상 가운데 한 부분적인 측면.
“사전-내용보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18년07월19일 수정, 2020년11월01일 접속,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pageSize=10&searchKeyword=%EB%8B%A8%EB%A9%B4>

II. 본 론

1. 식물

1) 식물의 생장

식물은 인간의 삶을 위해 필수적이다. 식물은 우리 지구에서 숨쉴 수 있는 대기를 만들고, 썩어 가는 몸체는 우리 발밑에 토양을 만들어 내며, 빛 에너지를 소비 가능한 영양소로 바꾸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준다.⁴⁾ 이러한 식물은 휴면, 발아, 성숙, 개화, 결실, 노화로 이루어진 생활환(life cycle)을 반복한다. 식물의 생활환(life cycle)을 한 번 반복하는 한해살이 식물부터 여러 번 반복하는 여러해살이 등이 있다.

식물의 생은 기준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식물학 백과에 따르면 식물의 생장은 크게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으로 나눈다. 영양생장은 식물체의 발생과 성숙에 이를 때까지의 과정을 말하며, 생식생장은 식물체의 생장보다는 종자를 생산하기 위해 꽃의 발생과 꽃가루받이, 종자의 성숙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단계를 말한다.⁵⁾ 다시 말해 생식생장은 식물의 꽃, 과실, 종자 등의 생식 기관을 분화시켜 발육시키는 과정⁶⁾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식물은 움직이지 못하는 고착 생물이다. 말 그대로 식물은 한 곳에 뿌리내려, 동물처럼 식량을 찾아 움직일 수 없다.⁷⁾ 따라서 식물이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적응하며 혼신의 힘을 다해 꽃, 과실, 종자를 만들어내기 위해

4) DK 『식물』 편집 위원회, 박원순 옮김, 식물 대백과 사전(서울:사이언스북스, 2020), p9

5) “학국 식물학회,” 네이버 지식백과, 2020년11월12일 접속,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782263&cid=62861&categoryId=62861>

6) “생식생장,” 우리말샘, 2016년10월03일 수정, 2020년11월12일 접속,
https://opendict.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882720&viewType=confirm#

7) 대니얼 샤모 비츠, 이지윤 옮김, 식물은 알고 있다(서울:다른, 2013), p.34.

움직이는 과정이 식물의 생식생장 과정이며, 이 과정을 지나 노화를 맞이한다.

2) 식물의 노화

한국한자어사전에 따르면 노화란(老化) 생물(生物) 또는 물질(物質)의 기능(機能)이나 성질(性質)이 시간(時間)이 경과(經過)함에 따라 쇠약(衰弱)해지는 현상(現象)⁸⁾이다. 이러한 노화의 의미를 식물에 적용해 보았을 때 식물의 노화는 ‘시들다’ ‘이을어지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시들다’는 ‘꽃이나 풀 따위가 말라 생기가 없어진다.’라고 정의한다. 전체 삶이 한 생장 계절에 불과한 1년생 식물은 종자를 생산한 후 노쇠하여 죽는다. 나무와 다른 다년생 식물은 1년 이상 살며 때로는 수백 년 동안 살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 조직도 종종 계절적으로 노쇠한다.⁹⁾ 노화는 개개의 세포(물관)나 기관(잎과 꽃 기관), 그리고 식물체 전체적으로(1년생 식물)일어날 수 있다. 노화는 환경 신호 및 에틸렌과 시토키닌 같은 생장조절물질에 의해 조절되는 발달 과정이거나, 또는 영양분 부족, 오염물질, 병원체 등의 스트레스에 의해 유도되기도 한다.¹⁰⁾ 탄생함과 동시에 단지 하나의 조직이나 기관이더라도 노화는 시작하는 것이다.

식물은 생장과정에서 노화의 단계로 진행함에 따라 쇠약해진다. 여기서 연구자는 보이는 현상과는 다른 의미로서 생식생장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이을어진 식물의 생명력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을어진 식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저 단순하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명을 잃어가는 것이라고 표

8) “(주)오픈마인드,” 네이버 한자사전,

https://hanja.dict.naver.com/word?q=%EF%A4%B4%E5%8C%96&cp_code=0&sound_id=0

9) Mariëlle Hoefnagels, 강해묵역, 생명과학: 개념과 탐구(서울:라이프 사이언스), 2013, p.249.

10) Irene Ridge, 조성호역, 식물의 이해(서울:월드 사이언스), 2006, p.273.

현하기 어렵다. 노화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과 수많은 시간 동안 살아오고 지나온 세월 속에서 식물은 적응과 생존의 이야기를 담고 변화한다. 식물은 도망칠 수 없다. 계절에 따라 이주하지도 않는다.¹¹⁾ 그저 적응하고 살아남으려고 한다. 식물이 성장하며, 시들어가며 남긴 모습들은 환경에서 식물이 살아남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다. 이처럼 지나간 세월을 고스란히 담은, 적응과 생존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울어진 식물의 흔적 속에서 식물의 삶의 여정을 엿볼 수 있다.

식물의 노화과정에서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 중 연구자가 가장 주의 깊게 관찰하고 매력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표면적으로 두드러지는 식물의 변화였다. 식물이 시들면서 생기는 표면의 질감과 색감은 식물의 어떤 부분보다 세월의 흔적을 머금고 있다.



【그림 1】 Mary Jo,
<white oak leaves in autumn>, stillblog,
<https://stillblog.net/stills/day/a-good-vintage/>



【그림 2】 Mary Jo,
<white pine needles>, stillblog,
<https://stillblog.net/stills/day/gradient/>

표면 변화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색감의 변화인 황화현상과 형태의 변화인 건조 현상이다. 표면 변화 중 잎의 노화에서 가장 뚜렷한 징후

11) 대니얼 샤모 비츠, 이지윤 옮김, 식물은 알고 있다(서울:다른, 2013), p.121.

는 황화현상(yellowing)이며, 엽록소 파괴로 인하여 카로티노이드 색소가 드러나기 때문에 나타난다.¹²⁾ 황화는 햇빛을 보지 못하여 엽록소가 형성되지 않아 엽록체 발달이 없어지고 누렇게 되며 생육 장애현상이 일어나는 일¹³⁾이다.



【그림 3】 Mary Jo,
<dried tulips>, stillblog,
<https://stillblog.net/stills/day/16176-2/>



【그림 4】 Mary Jo,
<dried and curled wild iris leaves in winter>,
stillblog, <https://stillblog.net/stills/day/14602-2/>

이러한 황화현상이 나타나기 이전 혹은 동시에 두드러지는 현상이 수분이 마르는 건조 현상이다. 식물의 생명력을 의미하는 수분이 사라지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물기를 머금고 있던 잎과 곧 터질 듯이 팽팽했던 열매는 수분이 날아가면서 형태가 비틀어지고 움츠러들며 주름이 나타난다. 곧은 줄기는 말라가며 꺾어진다. 이러한 건조 현상 과정에서 표면 질감이 두드러지게 된다. 식물의 표면을 덮고 있던 솜털은 더 도드라지고 줄기, 잎, 열매 등의 면은 움츠러들며 선들이 선명해진다. 이처럼 노화하며 나타나는 생의 흔적들을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작품에 표현했다.

12) Irene Ridge, 조성호역, 식물의 이해(서울:월드 사이언스), 2006, p.271.

13) “한국토양비료학회,” 토양비료 용어 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43265&cid=50317&categoryId=50317>

3) 예술 속 식물

식물이라는 소재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많은 예술가들에게 큰 영감을 준다. 16세기 이탈리아 화가이자 건축가 그리고 최초의 미술사가 중 한 명인 조르조 바사리(Giorgio Vasari)는 "미술의 기원은 자연에 있다. 이 아름다운 창조물인 세상이 최초의 모델을 제공해주었다."¹⁴⁾ 라고 표현했다. 이처럼 예술이 자연에 의존한다는 것이 당시 이론의 공통점이었다고 한다. 많은 예술가들이 자연에 영감을 받았으며, 식물은 다양한 방식으로 예술가들에 의해 표현되었다. 예술에 등장한 다양한 식물들 가운데 연구자가 주목하는 표현과 작가들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그림 5】 Rory McEwen, <True Facts from Nature No.10 (Northern Leaves for Cy)>, 1973, Watercolour on vellum, 543×686mm
【그림 6】 Rory McEwen, <Limerston Street>, 1979, Watercolour on vellum, 470×570mm

【그림 5】와 【그림 6】은 로리 맥웬(Rory McEwen)의 식물 세밀화이다. 로리 맥웬은 기존의 화가들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식물 세밀화를 접근한 화가이다. 화가들이 완벽한 표본을 찾는 일을 멈추고 평범한 채소, 과일,

14) "스티븐 파딩," 501 위대한 화가,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67322&cid=44533&categoryId=44533>

꽃들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로 한 것은 식물 세밀화에 있어 혁명적인 일이었다.¹⁵⁾ 이전까지는 결점하나 없는 식물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했다면 식물이 찢어지거나 썩은 잎의 모습 등 식물의 결함도 세세하게 표현했다. “죽어가는 잎은 세상의 무게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남긴 20세기 영국 화가인 로리 맥웬(Rory McEwen)은 이러한 접근법의 개척자였고, 현대 화가의 정신으로 자연 세계를 묘사한 첫 번째 식물 세밀화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¹⁶⁾



【그림 7】 장지영, <Plant_01>, 2020,
브로치, 은 동 칠보 포세린, 83×90×23mm

장지영 작가는 현대 장신구 작가로 전해 주조와 칠보 기법으로 형태를 잡아 작업한다. 장지영 작가의 작업은 식물의 순환을 함축적으로 장신구로 표현한다. 생성과 소멸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식물기관을 분류하고 분류된 상징들을 표현한다. 두 가지 요소의 조합을 통해서 서로 대비를 이루는 형태와 질감, 색감 등의 조형적 특성을 강조한다.¹⁷⁾ 장지영 작가는 연구자와 마

15) DK 『식물』 편집 위원회, 박원순 옮김, 식물 대백과 사전(서울:사이언스북스, 2020), p.124.

16) DK 『식물』 편집 위원회, 박원순 옮김, 식물 대백과 사전(서울:사이언스북스, 2020), p.124.

찬가지로 도자를 재료로 사용한다. 담금 기법과 주입 성형 기법을 사용하여 가볍지만 견고한 장신구를 제작한다. 장지영 작가와 연구자 모두 열매를 표현하는 데 있어 주재료로 도자를 사용한다. 연구자가 이물어진 식물의 다양하고 자연스러운 형태 표현을 위해 핸드 빌딩(hand-building) 기법을 선택한 것에 반해 장지영 작가는 등글게 부풀어 오른 열매의 볼륨감 있는 형태를 반복적으로 만들기 위해 주입 성형 기법을 활용¹⁸⁾하여 작품을 제작한다.



【그림 8】 김희주, 2010,
브로치, 적동 가죽 녹청,
90×60×35 mm



【그림 9】 김희주, 2010,
브로치, 적동 가죽 에나멜 켈러,
100×45×50 mm

김희주 작가는 식물이라는 주제를 칠보와 전해 주조 기법으로 작업하는 장신구 작가다. 식물을 통해 생명의 강인함과 에너지를 표현한다. 다양한 식물의 모습 중 열매와 꽃, 줄기 등의 식물기관을 모티브로 하여 형태를 표현하고 다양한 질감과 색감을 통해 주제를 형상화¹⁹⁾ 한다. 식물의 생명력을 표현하기 위해 형태와 표면의 질감과 색감을 다양하게 탐구하였는데, 형태 작업은 주로 전해 주조를 통해 이루어졌고 칠보를 비롯한 세라믹용 에나멜

17) 장지영. "식물의 순환을 표현한 장신구 연구," (국내석사학위,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2018), ii.
18) 장지영. "식물의 순환을 표현한 장신구 연구," (국내석사학위,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2018), p.23.
19) 김희주. "식물의 생명력과 원초적 이미지의 표현," (국내석사학위, 국민대학교 대학원, 2011), 1.

컬러, 녹청 기법 등으로 표면을 처리하였다. 거친 듯 견고한 표면 처리를 통해 자연물에서 느낄 수 있는 강렬함을 나타내어 형태를 더욱 부각²⁰⁾시켰다. 김희주 작가는 작업에서 다양한 색감 표현을 통해 원시의 생명력을 암시하고, 그 초현실적인 낯성, 그리고 자연과 생명의 경이로움을 보는 이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였다.²¹⁾ 연구자 또한 작품을 표현함에 있어 색감 표현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연구자가 이물어진 식물에서 나타나는 미묘한 색감 변화를 통해 식물이 살아온 생의 흔적이 도드라지는 것을 표현하는데 반해 김희주 작가는 원색부터 저채도의 색까지 다양한 색감의 조화와 대비를 통해 강한 생명력과 생동감 있는 에너지를 표현한다.



【그림 10】 신혜정, <Late Fall Leaves>, 2013,
브로치, 정은 적동 자연물 실,
(좌→우)246×40×20 mm, 180×95×38 mm 210×53×36 mm
245×80×37 mm 257×40×25 mm

신혜정 작가는 ‘자연’이라는 주제로 작업하는 장신구 작가이다. 신혜정 작가는 자연이 지역과 문화의 경계로부터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인류의 언어라

20) 김희주. "식물의 생명력과 원초적 이미지의 표현," (국내석사학위, 국민대학교 대학원, 2011), 국문 요약.

21) 김희주. "식물의 생명력과 원초적 이미지의 표현," (국내석사학위, 국민대학교 대학원, 2011), p.26.

고 표현한다.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반복하는 자연물 그 자체의 형태에서 나타나는 독창적이고 무한히 자유로운 특징들을 사실적으로 포착하여 금속으로 표현한다. 백지의 여백과 같은 정은에 돈을새김 기법으로 따뜻하고 즉흥적이며 시적인 자연의 모습을 재구성하는 신혜정 작가의 작업은 수집한 식물과 은을 함께 배치하여 장신구로 표현한다. 연구자가 이율어진 식물의 형태, 질감, 색감 등을 극대화하여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재료를 통해 왜곡, 과장 혹은 생략하여 작품으로 제작한 반면에 신혜정 작가는 자연물의 형태적 특징들을 사실적으로 포착하여 정은이라는 금속을 주요한 재료로 자연물을 유연하며 힘 있게 재탄생한다.

앞서 서술한 것처럼 과거에도 현대에도 많은 작가들이 식물을 주제로 작업을 진행하며 자연을 모티브로써 예술의 소재로 다양하게 표현했다. 연구자는 장신구 작업에 식물에 담긴 세월의 흔적 속 느껴지는 힘을 담으며 다양한 물성을 가진 재질을 통해 이율어진 식물의 성장과정을 탐구하여 자연물의 차별화된 표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처음 작업을 진행할 때에는 식물의 싱그러움을 담고 있는 개화의 모습부터 열매를 맺고 점점 시들어가며 노화로 다가가는 모든 과정을 담아내어 시리즈로 작업했다. 찬란한 시기와 그 시기를 지나며 서서히 그 모습을 잃어가는 식물의 생과 사, 그 과정을 표현했다. 이 모든 과정의 흐름을 보여주므로 식물의 삶의 흔적을 담고자 했다. 열매가 무르익어 수분을 머금은 모습부터 열매가 터지고 속살을 드러내며 점점 수분을 잃고 말라가는 과정이나, 꽃잎의 화려한 색감과 매끈한 표면이 점점 시들어가며 색과 향 그리고 꽃잎을 하나씩 잃어가고 주름이 생기는 모습까지 그 과정을 모두 담은 작업들이었다.



【그림 11】 서은영, 이울어가는 튤립 시리즈, 【그림 12】 서은영, 이울어가는 튤립 시리즈,
2017, 브로치, 적동 은 2017, 브로치, 은

【그림 11】 과 【그림 12】 는 튤립의 생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표현한 시리즈 작업이다. 그중 【그림 12】 의 작업이 식물 생의 마지막 단계인 이울어진 식물을 표현한 작업이다. 앞서 연구자는 식물의 생명력을 표현하고자 했다. 이울어진 식물은 찬란한 시기가 지나고 서서히 나타나는 삶의 흔적을 담고 있다. 자라나고 피어나는 과정을 지나, 세월을 버텨내며 자연에 순응하고 적응하며 그 삶 속의 시간의 흐름을 오롯이 보여주는 식물의 모습에서 세월의 힘을 담고 있는 식물의 생명력을 엿볼 수 있었다. 선행연구를 거치며 이울어진 식물이 담고 있는 생의 흔적을 표현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연구자가 이울어진 식물을 통해 보고 느낀 것을 구체적인 형태로 가시화하여 표현하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시든 식물이 가진 형태, 질감, 색감 등을 가장 극대화하여 표현할 수 있는 재료들을 탐구했다. 재료를 탐구하며 각각의 부분을 제작하고 결합하며 연구자의 시각을 담은 생명력이 느껴지는 시든 식물의 표현 연구를 진행했다.

2. 작품 전개과정

1) 형태연구

이울어진 식물의 구조를 바탕으로 조형적으로 해석하여 형태를 만들어갔다. 진행한 형태 연구에서 이울어가며 생긴 식물의 변화된 움직임 표현하는 것에 집중했다. 바람, 햇빛, 토양의 성질 등 다양한 영향 속에서 식물들은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생긴 움직임을 이울어진 식물은 모두 담고 있다. 성장을 마친 이후에도 식물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는다. 건조 현상이 나타나면서 표면 질감이 두드러지는 형태 변화를 겪는다. 물기를 머금고 있던 식물이 비틀어지고 말라가며 또 다른 움직임을 만들어간다. 비록 식물은 죽어서 생명을 다했지만 자연현상을 통해 유려한 선들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식물이 노화하며 생긴 흔적들을 작품에 담고자 했다. 이울어진 식물이지만 어떠한 식물의 이미지보다 움직임이 있는 형태를 강조, 왜곡하여 장신구로 제작했다.

2) 재료 및 기법 연구

이번 연구는 시든 식물의 각 부분에서 나타나는 질감이나 색깔 등을 극적으로 표현이 가능한 재료와 기법을 찾는 것에 가장 큰 비중을 두었다. 금속을 주재료로써 사용하고 있지만 각 부분의 표현에 적합한 다양한 타 재료를 사용해 유닛으로 제작하고 결합하여 연구자가 느낀 식물의 모습을 구현했다. 다양한 표현을 위해 황동, 은, 유기, 도자, 섬유, 칠보, 나무 등 다양한 재료를 탐구하고 적용했다. 재료와 기법 중 가장 많이 사용된 재료를 물성에 따라 크게 금속, 도자, 섬유로 나누어 분류하고 각 재료의 특징과 사용된 기법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① 금속으로 표현된 이물어져 가는 식물



【그림 13】 황동 선 연결부위에 은 땀을 이용해 식물의 마디표현.



【그림 14】 철사를 고정하고 은 땀을 흘려 표현한 이물어진 식물의 표면질감 표현

작품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된 금속 재료는 황동과 은이다. 황동을 작품의 가장 큰 비율로 사용했다. 동 중에서도 많은 작가들이 일반적으로 작업에 사용하는 적동이 아닌 황동을 주재료로 사용했다. 그 이유는 황동의 노르스름한 색은 시든 식물의 기본적인 색감과 가장 유사하며, 작업 과정 중 나타나는 황동의 색감 변화는 식물이 황화현상의 영향으로 점차 자신의 색을 잃고 빛바래가는 것을 표현하는 것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연구자는 시든 식물의 표면에 드러나는 털과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 표면에 일정한 방향으로 줄질을 했다. 또한 샌딩으로 진행하는 황동 작업의 표면처리까지 마무리되면 작품을 공기 중에 의도적으로 노출시켜 황동의 표면에 자연스럽게 변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렇게 나타난 표면의 얼룩은 시든 식물의 색감 변화를 나타낸다. 은은 황동과 함께 식물의 잎, 열매, 가지 그리고 다양한 선을 표현하는데 사용되었다. 은은 단독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황동 위에

은 땀을 녹이고 흐르게 하여 식물의 표면 질감을 표현하거나, 땀으로 사용하여 황동과 황동 사이의 식물의 마디를 나타냈다. 연구자는 작업 과정 속에서 은 땀을 갈아 내지 않고, 하나의 질감의 표현으로 사용하며 더 나아가 땀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도 의도적으로 땀을 흘려 식물의 다양한 표면처리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또 다른 금속 재료로는 유기가 있다. 황동이나 은과 다르게 유기는 연구자가 재료로 접하기 어렵고 생소했다. 연구자만의 시든 식물을 표현하기 위해 의미 있는 재료를 찾고자 연구하는 과정에서 찾게 된 재료이다. 할머니댁에서 과거에 사용했던 낡고 쇠한 오래된 유기그릇과 수저를 재료로 사용하였다. 유기 수저의 생명력은 사용되는 것에 있다. 하지만 지금은 사용되지 못하고 녹슬어 색이 변하고 이곳저곳 삭아서 구멍 난 유기는 생명력을 다하고 변화하는 시든 식물과 많이 닮아 있다. 시간의 흐름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점에서 유기 수저와 시든 식물은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다. 오래된 유기 수저는 사용되던 시기에 난 다양한 소모된 흔적, 변화한 녹과 같은 색깔 그리고 유기라는 재료의 특성을 담고 있는 고유의 질감을 최대한 살려서 작업을 진행했으며 약간의 망치 성형과 줄질로 시든 식물의 줄기에 있는 솜털과 같은 질감을 표현했다. 유기라는 재료를 연구함에 있어 사용되지 못하는 낡고 쇠한 오래된 유기 수저는 생명을 잃었지만 연구자가 작품으로 유기를 재탄생 시켜주었으며, 이는 시든 식물의 의미와도 일맥상통한다.

② 도자로 표현된 이울어져 가는 식물

도자는 식물의 열매 부분을 표현하는데 주재료로 사용하였다. 곧 터질 듯이 뽕뽕했던 열매는 익어감에 따라 색깔이 변화하고 열매가 터지고 벌어지기도 하며 형태가 변화한다. 식물의 생명을 의미하는 수분이 사라지면서 형

태가 비틀어지고 움츠러들며 주름이 나타나는 것이다. 열매가 무르익어 수분을 머금고 딱 차 끈 터질 것과 같은 모습부터 열매가 터지고 속살을 드러내며 점점 수분을 잃고 말라가는 과정 그리고 열매의 색깔 변화 모두 담을 수 있는 재료로 도자기를 선택했다. 도자기는 식물에서 열매의 변화 과정과 닮아있다. 제작 과정에서 그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그림 15】 도자 제작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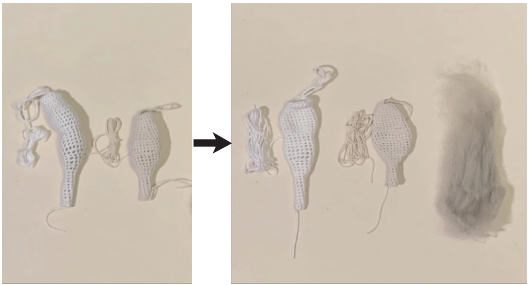
다양한 재료 가운데 분청토를 선택하여 작업을 진행했다. 분청토는 자연스러운 형태를 제작하기에 용이하다. 열매가 이물어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변화를 형상화하여 핸드 빌딩으로 제작했다. 다양하고 자연스러운 형태로 제작하기 위해 슬립 캐스팅(slip casting)이 아닌 핸드 빌딩의 제작 방식을 선택했다. 처음에는 코일링(coiling) 기법으로 제작했는데 얇은 선을 켜켜이 쌓아 면을 만드는 과정에서 면의 얇기 조절이 어려웠고 열매 표면의 굴곡도 연구자가 의도에 따른 제작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에는 코일링이 아닌 판 성형으로 변화를 주었다. 분청토를 밀대로 밀어 판을 제작하고 완성할 형태의 모양에 따라 도안을 제작해서 재단 후 빚어주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했다. 연구자가 의도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재료로 도자를 선택하였지만 장신구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우선 장신구로 착용하기 위해 도자기의 무게를 줄여야 했고, 안정적인 결합도 고려해야 했다. 무게는 처음 판 작업을 진행할 때 최대한 얇게 작업하고 도자기 안을 비워서 줄여 주었다. 결합에 있어서는 도자기가 가마에서 구어 나온 이후 성형이 어렵기

때문에 완성되었을 때 결합이나 뒷장식의 위치를 고려하여 도안을 짜고 미리 구멍을 뚫어주었다. 도자기 유닛의 형태 또한 금속과 결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열매의 형태를 설정하여 제작하였다. 기본적인 형태로 양쪽이 좁아지게 설정하고 좁아진 양쪽 끝부분에 구멍을 뚫어서 제작했다. 이러한 형태는 결합 과정에서 도자기 안으로 붓을 넣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도자기 제작 이후 계획과 다르게 결합해야 하는 상황에서 활용 가능했다. 이러한 형태를 제작할 때에는 도안 재단 후 빚는 과정에서 열매의 형태를 관통하게 금속 붓을 넣어주고 이후 붓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흙의 상태로 형태 성형 후, 1차 표면 성형이 가능하도록 약간 건조한다. 건조 후 말라가는 열매가 가진 다양한 질감을 도자기 표면에 긁거나 찍어내어 표현했다. 표면이 다 마르기 이전에 화장토를 발라 상감을 해주고 표면의 질감을 추가했다. 화장토는 열매가 시들면서 생기는 얼룩과 흔적들을 표현해 주는 용도로 사용했다. 분청토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기 위해 분청토와 화장토를 다양한 비율로 섞어서 여러 번 발라주었다. 이렇게 제작한 작업은 스펀지를 이용해서 표면을 다듬어주고 완전히 건조한다. 완전히 건조된 도자기는 사포와 칼을 이용해 한 번 더 다듬어 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자기로 제작한 열매의 모든 면들은 조금씩 다른 얇기로 만들어진다. 이후 가마에서 굽는 과정을 거쳐서 흙의 상태에서 도자기로 완성되는데 이 과정에서 시들어가는 열매와 같이 도자기는 조금씩 수분을 잃어간다. 수분을 잃어가면서 도자기 자체에 변화가 일어난다. 연구자의 손을 떠나서도 다양한 영향에 따라 스스로 변화하는 것이다. 건조나 가마에서 산화 소성²²⁾하는 과정 속에서 얇거나 두꺼운 정도에 따라 수축률이 달라지고 수축률에 따라 비틀어지거나 움츠러들며 스스로 자연스럽게 변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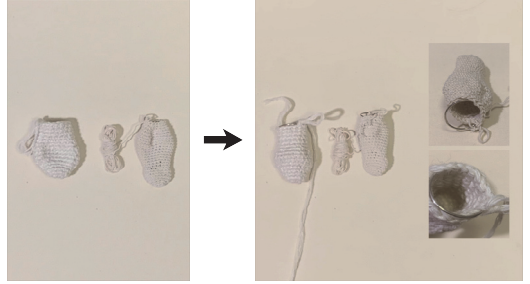
22) 산화 소성이란 도자기 소성 중에 요(窯) 내의 산소의 공급을 증가하여 소지(素地 : 기초, 바탕)나 유약(釉藥) 중의 광물을 산화시켜 색에 변화를 주는 소성 방법이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③ 섬유로 표현된 이울어져 가는 식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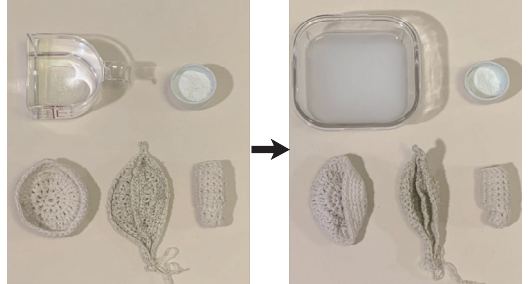
섬유의 특징과 섬유 자체의 재질을 이울어진 식물로 표현했다. 섬유는 각각의 실이 가진 특징과 재질에 따라 다른 결과물을 보여준다. 시든 식물의 색깔과 질감을 담을 수 있는 실을 선택하는 것이 작업의 시작이었다. 다양한 실을 가지고 하나의 유닛들을 최대한 많이 생성했다. 코바늘을 이용해 이울어진 열매, 잎, 가지 등의 유닛들을 제작하고 제작한 유닛들 가운데 이울어진 식물에 적합한 작업을 선별했다. 제작한 유닛들을 결합에 앞서 각 유닛들의 모양을 잡고 고정시켰다. 섬유가 가진 축 늘어지거나 접히는 등의 특징도 살려야 했지만 장신구로써 다른 재료들과 어우러지며 결합하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의도한 형태로 모양을 고정시키고 무게감을 살려줄 필요가 있었다. 3가지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첫 번째로는 금속 프레임을 제작 후 실과 함께 뜨개질 하여 형태를 고정시키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형태가 크고 약간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 실에서 가장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형태가 인위적으로 보여 부자연스러웠으며 실 사이로 금속 프레임이 보인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두 번째로는 양모 혹은 솜을 넣어서 고정시키는 방식이었다. 실안에 양모나 솜을 넣으면 넣는 양에 따라서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형태를 변형할 수 있으며 약간의 텐션과 무게감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적합했다. 하지만 유닛의 양 끝이 막혀있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했다. 세 번째로는 찹쌀 풀을 먹이는 방식이다. 물 한 컵에 찹쌀 풀 2스푼을 넣고 끓인 후 작업을 적셔준다. 적신 유닛은 1차로 드라이기로 말리며 모양을 잡아준다. 어느 정도 형태가 잡히면 상온에서 충분히 건조한다. 찹쌀 풀로 진행한 방식은 자연스러운 모양으로 성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적합했다. 하지만 실의 종류에 따라 실이 너무 가늘거나 열기설기 짠 경우 완전한 고정은 불가능했다. 연구자는 3가지의 방식을 사용하여 실의 종류와 작업의 모양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선택해서 제작했다.

제작과정		설명 디자인 한 모양에 따라 제작하고 끝부분을 마감하기 전 안에 양모 혹은 솜을 넣어준다. 원하는 모양으로 형태를 잡고 끝을 코바늘로 뜨개질 하여 마무리한다.
특징	양모나 솜을 넣으면 넣는 양에 따라서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형태를 변형할 수 있으며 약간의 텐션과 무게감도 줄 수 있다.	문제점 유닛의 양끝이 모두 막혀있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

【표 1】 섬유 제작방식 I

제작과정		설명 미리 금속 프레임을 제작한다. 뜨개질 하는 중간 중간 크기에 맞는 금속 프레임을 넣고 함께 뜨개질하여 고정시켜준다.
특징	형태에 상관없이 어떠한 형태에도 모두 가능하고 원형, 타원형, 자유곡선 등 다양한 모양으로 고정시킬 수 있다.	문제점 형태가 인위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며 실 사이로 금속 프레임이 보인다.

【표 2】 섬유 제작방식 II

제작과정		설명 물 한 컵에 찹쌀풀 2스푼을 넣고 끓인 후 섬유작업을 적셔준다. 적신 유닛은 1차로 드라이기로 말리며 모양을 잡아준다. 어느 정도 형태가 잡히면 상온에서 충분히 건조한다.
특징	자연스러운 모양으로 성형이 가능하며 고정된 이후 실을 제외한 다른 재료가 보이지 않는다.	문제점 실의 종류에 따라 실이 너무 가늘거나 열기설기 짠 경우 완전한 고정이 불가능하다.

【표 3】 섬유 제작방식 III

3. 작품 설명

앞서 진행한 연구를 바탕으로 12 개의 현대 장신구를 제작했다. 작품의 주제 및 특징에 따라 분류하여 각각의 작업을 설명하고자 한다. 연구자의 작품은 이울어진 식물의 구조를 바탕으로 조형성을 잡을 때 중점이 된 요소에 따라 3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식물기관을 표현한 작업이다. 열매, 가지, 잎 등 각각의 식물 요소를 중심으로 작업을 진행했다. 두 번째로는 이울어가며 생기는 움직임과 실루엣을 표현한 작업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재구성한 작업이다. 실제 식물의 모습을 왜곡, 과장 혹은 생략하여 작업하고 재구성하여 진행했다.

【작품 1】, 【작품 2】, 【작품 3】은 각각의 식물기관을 중점으로 표현했다. 이울어진 식물의 모습에서 연구자가 표현하고자 한 각각의 식물기관을 각출하여 작업의 주제로 표현했다. 【작품 1】은 열매를 중점으로 【작품 2】는 가지를, 【작품 3】은 시든 잎이나 열매의 껍질 등, 식물기관 틈 사이로 나온 수술과 씨앗의 형태를 중점으로 표현했다.

【작품 4】, 【작품 5】, 【작품 6】, 【작품 12】는 움직임과 실루엣의 표현에 집중했다. 이울어지며 가지, 잎, 줄기, 열매 등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형태 변화를 움직임이 느껴지게 설정하여 표현했다.

【작품 7】, 【작품 8】, 【작품 9】, 【작품 10】, 【작품 11】은 식물의 재구성을 중심으로 작업을 진행했다. 이울어진 식물이 가진 다양한 형태, 질감, 색상 등을 가장 극대화하여 표현할 수 있는 재료들로 각각의 부분을 제작하여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재구성하고 결합하는 방식으로 작업했다.



【작품 1】 고요한 움직임 시리즈 2019
가변설치 브로치 은, 황동, 도자

【작품 1】 은 은, 황동, 도자를 이용해 열매가 이물어가며 생기는 질감이 나 형태 그리고 색감 등을 표현했다. 식물기관 중 열매를 특정하여 작업했으며 말라가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열매가 수분을 머금고 곧 터질 듯 뽕뽕한 모습을 금속판을 다이 포밍(die-forming)하여 입체적으로 표현했다. 그에 반해 분청 작업은 점점 수분을 잃고 말라가는 모습 그리고 열매가 터지고 벌어진 모습을 형상화했다. 각 재료의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황화현상을 표현하기 위해, 황동 표면에는 은 땀을 흘려주고 분청토 위에는 화장토를 발라 작업했다. 각각의 작업의 뒷장식은 브로치 핀 장식으로 작업했으며, 분청 작업은 뒷장식을 부착할 위치에 미리 구멍을 뚫어주고 뒷장식을 땀한 판에는 구멍 위치에 선을 땀하여 콜드 조인트(cold joint) 기법으로 연결했다.



【작품 2】 그 곳에서 2019
450×320×70mm 목결이 황동

【작품 2】는 가지 표현을 중심으로 작업했다. 황동선과 해머링 한 황동 유닛을 결합하여 이물어진 식물의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작품 2】는 이물어가며 잎이 사라진 잎맥과 가지가 얽혀있다. 굵은 황동 가지가 기준 뼈대가 되고, 그곳에서 파생된 얇은 가지와 잎맥은 은 뿔을 흘려 결합했다. 각 가지의 연결부위에 은 뿔을 땃히게 흘려주어 마디를 표현했다. 가지에 자리잡은 솜털을 표현하기 위해 황동선을 양쪽에서 강한 힘으로 당겨 미세한 질감을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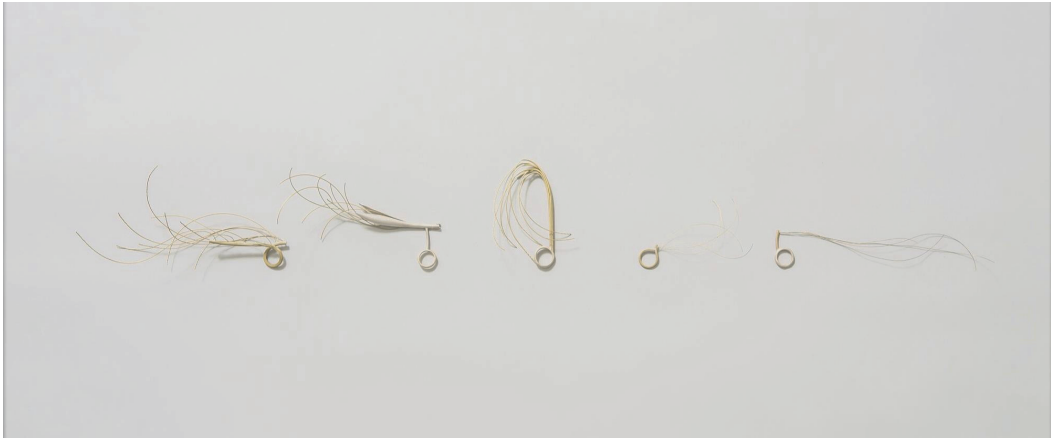
【작품 3】 그 넘어 2019

225×65×15mm, 270×45×15mm, 210×45×15mm,
240×75×75mm, 220×45×45mm

뱃지 은, 황동

【작품 3】 이울어진 식물에서 보편적으로 보이는 현상 중에 하나인 식물 기관의 틈에서 터져 나온 요소들을 중점으로 작업했다. 시든 식물의 많은 기관들은 건조되어 마르거나, 터지는 등의 현상으로 내부에 품고 있던 요소들을 밖으로 드러낸다. 이렇게 밖으로 드러난 형태를 선의 요소로 표현했다.

【작품 2】와 마찬가지로 얇은 황동선을 양쪽에서 강한 힘으로 당겨 표면 질감을 표현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텐션을 가지게 되었다. 얇지만 텐션을 가진 선들은 착용 시 서로 부딪히며 소리를 낸다. 이 소리는 마른 식물들이 바람과 같은 자연의 다양한 현상들에 의해 생기는 소리를 표현한 것이다. ‘그 넘어’ 시리즈는 몸체 부분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브로치 핀 장식을 부착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용이한 착용과 안정감을 위하여 두 개의 뱃지 장식을 사용하여 무게중심에 맞춰 제작했다.



【작품 4】 이울어가는 2019

92×110×50, 80×182×30, 118×90×40, 40×220×40, 110×210×52mm

반지 은, 유기, 황동



【작품 5】 시든식물, 흘러가는대로Ⅳ 2019

264×90×50mm 브로치 은, 유기, 황동



【작품 6】 시든식물, 흘러가는대로 I 2019

245×150×15mm 브로치 유기, 황동

【작품 4】, 【작품 5】, 【작품 6】은 이물어지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움직임과 실루엣의 표현에 집중하였다. 이물어가며 생기는 가지, 잎, 줄기, 열매 등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형태 변화를 움직임이 느껴지게 방향성을 설정하여 표현했다. 【작품 4】는 수분을 잃고 얇아진 줄기가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표현했다. 얇은 황동선을 사용해 흩날리는 줄기들의 움직임을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작품 5】와 【작품 6】은 유기 가지에서 파생된 황동 줄기, 잎 그리고 열매가 자라면서, 혹은 익어감에 따라 생기는 형태의 변화를 중심으로 작업했다. 각 부분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식물이 이물어지며 생긴 가지의 꺾임과 같은 변화된 형태를 표현했으며 벌어진 잎과 줄기 사이에서 나온 얇은 은선과 황동선을 이용해 흩날리는 느낌을 표현했다.



【작품 7】 바람이 부는 대로 II 2019
250×80×55mm 뱃지 은, 황동, 도자

【작품 7】은 열매가 이물어가며 수분을 잃고 말라가는 모습을 표현했다. 마른 껍질이 얇아짐에 따라 품고 있는 씨앗의 실루엣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러한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작업했다. 씨앗을 품은 열매 위에는 작은 열매가 달린 마른 가지를 재구성하여 작업했다. 아래 위치한 마른 열매는 분청으로 형태를 제작했다. 열매가 마르며 생긴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 분청 표면을 긁어내고 화장토를 상감하여 작업했다. 위에 자리 잡은 가지는 왁스로 제작한 각각의 열매를 황동 가지 위에 땀하여 결합했다. 【작품 7】은 착용했을 때 안정적으로 무게를 지탱하기 위하여 두 개의 뱃지 장식을 부착했다. 앞선 분청 작업들과 마찬가지로 도자 작업을 진행할 때 뒷장식을 부착할 위치에 맞춰 미리 구멍을 뚫어주고 뒷장식을 콜드 조인트 기법으로 연결했다.



【작품 8】 바람이 부는 대로Ⅲ 2020
140×110×50mm 뱃지 은, 황동, 도자

【작품 8】은 표면 질감 표현에 중점을 두고 각각의 유닛들을 제작 후 결합하였다. 분청 위에 화장토를 올려줄 때 기존의 화장토에서 수분의 비율을 줄여서 표면 질감이 드러나게 작업했다. 또한 보통 도자 마무리 작업에서 칼과 사포를 이용해 다듬어주지만 【작품 8】의 분청 작업은 거친 표면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 도자 작품의 표면을 다듬지 않고 화장토를 붓으로 바른 터치와 질감을 그대로 살려주었다. 황동 작업과 함께 은을 사용하여 마르며 드러난 잎맥의 질감 표현했다. 철사를 세로로 고정시켜주고 고정시킨 철사를 따라 은을 흘렸다. 이후 철사를 제거하면 철사가 있던 자리는 선이 생기고 주변으로 은이 도포된다. 사포를 사용해 땀이 흐른 자국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살려주어 질감이 도드라지게 작업했다. 【작품 7】과 같은 방식으로 뒷장식을 작업했다. 차이점은 무게중심에 맞춰 금속과 도자 유닛에 각각 뱃지 장식을 하나씩 부착하여 안정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작품 9】 바람이 부는 대로 I 2020
255×260×40mm 뱃지 은, 분청, 유기, 황동

【작품 9】는 【작품 8】과 같은 방식으로 분청 부분을 제작하고 하단에는 과장된 마른 가지를 결합했다. 마른 가지는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에서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 자라나는 꺾어진 나무의 형태를 형상화하여 제작했다. 【작품 9】는 분청으로 제작한 둥근 형태와 길게 왜곡된 가지의 형태가 대비를 이루며 결합되어 있다. 이러한 대비 속에서 가지의 흐름이 더 도드라져 보인다.



【작품 10】 그 안에서Ⅱ 2020

133×65×30mm 브로치 은, 적동, 칠보, 나무

【작품 10】은 칠보로 이슬어진 열매의 내부 질감을 표현했다. 적동을 해머링 하여 열매의 형태를 잡고 칠보를 올렸다. 칠보를 올리기 전 금속 표면 위에 CMC 를 갠 물을 분무하고 선으로 금속표면을 긁어가며 원하는 형태로 구성했다. 그 위에 흰색 칠보 가루를 체에 걸러 도포했다. 도포 후 바로 금속 작업을 뒤집어 털어내면 물기가 없는 부분의 칠보 가루가 제거된다. 제작한 칠보 작업 뒤로 잎의 모양을 형상화하여 은판으로 제작했다. 입체의 칠보 작업, 평면으로 제작한 은판 그리고 건조시킨 나무를 결합함으로써 형태와 재질이 대비되어 각각의 특징이 더 도드라진다.



【작품 11】 그 안에서 I 2020

145×75×25mm 브로치 은, 황동, 적동, 유기, 칠보

【작품 11】은 【작품 10】과 같은 방식으로 잎을 형상화한 적동판 위에 칠보 작업을 진행했다. 황동과 은으로 벌어진 열매의 형태를 제작하고 유기가지와 땀으로 결합했다. 황동 위에는 은 땀을 흘려주고 즐질한 후 황화칼륨 착색으로 처리하여 이슬어진 식물의 숨털과 색감 변화를 표현했다. 잎의 뒤 판은 칠보가 결합 가능하도록 난집을 제작했다.



【작품 12】 그 순간 2020
198×40×27, 215×48×35mm 브로치 은, 유기, 도자

【작품 12】는 이울어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실루엣의 표현에 집중했다. 익어감에 따라 열매는 점점 무거워지고 무거워진 열매로 인해 변화된 가지의 모습을 형상화하여 결합하였다. 이울어진 열매의 도자 표면은 【작품 7】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했다. 유기 가지와 도자 열매의 자연스러운 결합을 위해 제작된 은 주물은 각을 살려 줄질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유기에 표현된 각과 함께 마른 줄기에서 나타나는 주름과 질감을 나타낸다. 실루엣을 해치지 않고 잘 스며들 수 있도록 분청 작업에서 은 주물까지 연결되는 브로치 선을 줄기의 흐름과 맞추어 작업했다.

Ⅲ. 결 론

본 연구는 식물의 생을 들여다보고 자연의 일부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생성과 소멸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식물의 성장 과정 중 노화현상을 증점으로 연구했다. 자연 속에서 식물의 노화현상이 발생하는 과정과, 노화현상 속에 담긴 식물의 생의 흔적을 조형화했다.

주제를 표현함에 있어 자연 속에서 식물이 노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에 대해 연구하고 식물의 노화현상 속에서 연구자가 느낀 감정과 의미를 조형화하여 현대 장신구로써 작품에 담아냈다. 연구자는 식물이 주변 환경에 적응하며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수분을 잃고 비틀어지고 말라가며 생기는 움직임의 형상화하여 형태를 잡고, 식물이 살아온 생의 흔적 즉, 생의 이면에 존재하는 미적 가치가 도드라지는 색감과 질감을 다양한 재료로 표현했다.

이울어진 식물의 효과적인 표현을 위해 황동, 은, 유기, 도자, 섬유, 칠보, 나무 등 다양한 재료를 탐구했다. 이울어진 식물이 가진 독특한 형태, 질감, 색감 등을 가장 극대화하여 표현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 유닛을 제작 후 결합하는 방식으로 이울어진 식물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현대 장신구를 제작했다. 각각의 재료와 기법으로 제작된 유닛들은 형태, 질감, 색감 등의 자연스러운 조화와 대비로 새로운 이미지를 나타낸다.

본 연구논문은 총 12개의 현대 장신구로 구성되어 있다. 시든 식물의 이미지를 형상화 한 현대 장신구 연구를 통해 적응과 생존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울어진 식물을 예술 창작의 표현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또한 장신구 작업에서 잘 다뤄지지 않는 유기나 도자를 이울어진 식물을 표현하는 재료로 작품에 담아내어 장신구의 새로운 재료적 표현 범위의 확장을 시도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얻은 이울어진 식물의 주관적 해석과 다양한 재료로 나타낸 표현방식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창작 활동을 기대해본다. 또한 연구자의 작품을 통해 이울어진 식물에 담긴 생의 흔적이 의미하는 세월의 힘을 새겨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 안에서 식물의 삶의 여정과 자연현상의 변화에 따른 조형적 아름다움을 되짚어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대니얼 샤모비츠. 이지윤 옮김. 식물은 알고 있다. 다룬, 2013
DK 『식물』 편집 위원회. 박원순 옮김. 식물 대백과사전. 사이언스북스, 2020
Irene Ridge. 조성호역. 식물의 이해. 서울:월드 사이언스, 2006
Mariëlle Hoefnagels. 강해묵 역. 생명과학: 개념과 탐구. 라이프 사이언스, 2013

<학위논문>

- 김선영. "얇은 금속을 이용한 식물 표현."
국내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대학원, 2013.
김지현. "자연의 변화현상을 모티브로 한 화예디자인 작품연구."
국내석사 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라이프스타일디자인대학원, 2015
김희주 "식물의 생명력과 원초적인 이미지의 표현."
국내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대학원, 2011
장지영. "식물의 순환을 표현한 장신구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2018
주미정. "식물의 생성과 소멸 이미지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2012

<학술논문>

- 하선규. "예술과 자연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연구."
美學·藝術學研究 34.- (2011): 181-223.

<웹사이트>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네이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네이버 한자사전 <https://hanja.dict.naver.com>

우리말샘 <https://opendict.korean.go.kr>

STILL <https://stillblog.net>

Rory McEwen <https://www.rorymcewen.com>

ABSTRACT

A Study on the Contemporary Jewelry in the Image of Withered Plants

Seo Eun Young
Department of Crafts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e following thesis, out of the various stages of a plant's growth process, focuses on a plant's senescence. This research paper also displays how a trace of life within a plant's aging process can be expressed in the form of contemporary jewelry. It is more common for one to think of the start, the birth of a plant when thinking of a plant in nature. In comparison, the aging process is recognized as a loss of life according to the flow of time. However, the researcher interpreted an aging plant to hold the power that reflects its time on earth than a matter that deteriorated in time. The researcher intends to trace back a plant's life by observing the marks left in a withered plant and explore the formative beauty caused by its course in nature in the form of contemporary jewelry-making.

In a plant growth process, aging is as crucial as part of its sprouting.

In nature, when life is created, it is followed by the process of growth and is inevitably met with the stage of aging; then this whole process endlessly repeats. Plants with roots unable to physically relocate would sense their surroundings and use nature to spread their seeds. The remnants of such a process are shown in the form of a withered plant. The trace of transformation and the process of assimilation can be found here and there on a withered plant. In the process of aging, the color, scent, and form of a plant slowly fade away. However, the fading of such aspects is not a permanent loss. The fading of its color means a change into a tone that reflects the traces of its life. Also, the change into a twisted, dry form is not a showcase of the coming end. However, it is a transformation to an elegant flow of lines between the leaf and the stem. As such, a withered plant, in its process of slowly fading away from life, paradoxically displays the power of life. Over time, the plant withers with its trace of adaptation and survival whilst holding on to the power of accumulated time.

The researcher does not merely reproduce the phenomenon or the form found in a plant during its aging process. However, the researcher explores a plant's process of reaching the stage of aging and finds the meaning and emotions to give her interpretation. The researcher's interpretation of the withered plant that holds the traces of life seen in a withered plant is then expressed in the form of contemporary jewelry. Researching appropriate materials magnifies a withered plant's form, texture, and the color was one of the researcher's primary focus. The

change of the plant's surface can be divided into two main aspects: first, the etiolation showing the color difference, and secondly, the dehydration leading to the form's change. Materials were selected and used accordingly so that each part of the plant's changes could be represented. Each unit was individually produced and later combined, reflecting the researcher's perspective of a withered plant. Formative expression was explored based on the construction of a withered plant. By exaggerating, distorting, and omitting a withered plant's form and texture using various materials (such as metal, ceramics, and fabric), the plant was reconstructed into a piece of jewelry according to the researcher's interpretation.

In this contemporary jewelry research, the image of a withered plant that holds a story of adaptation and survival throughout time takes on a physical form as pieces of jewelry. By doing so, two primary purposes of this research can be identified: Firstly, to suggest a withered plant's potential as a motif or an artistic inspiration for artistic creations. Secondly, to establish the conceptual idea and direction of the artworks that the researcher intends to develop, based on the various methods the researcher has used using multiple materials and her interpretation.